최형우 2루타 465개…이승엽 넘어 KBO 신기록

KIA, 삼성에 5-3승 시즌 첫 스윕

최형우 “내 의무 다 한 느낌이다”

최형우로 시작해 최형우로 끝난 승리. 최형우가 KBO의 역사가 됐다.

KIA 타이거즈가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5-3 승리를 거두고 싹쓸이 3연승에 성공했다. 지난 19일 롯데전에서 5연패에서 탈출했던 KIA는 20일 다시 3-5패를 기록했지만 삼성을 만난 주말, 분위기를 바꿔 3승을 더했다.

‘최고참’ 최형우가 주인공이었다.

최형우는 21일 삼성과의 시즌 첫 대결에서 2-4로 뒤진 9회말 무사 1·2루에서 챔피언스필드를 뒤집었다. 최형우는 투 스트라이크의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이승현의 직구를 왼쪽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경기를 끝냈다.

스윕에 도전했던 23일 경기에서도 최형우의 이름이 전광판에 새겨졌다.

최형우는 0-1로 뒤진 1회말 2사 2루에서 맞은 첫 타석에서 백정현을 상대로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터트렸다. 개인통산 465번째 2루타로 선취점을 장식한 최형우는 이승엽 두산 감독이 가지고 있던 464개의 2루타를 넘어, 가장 높은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게 됐다. 최형우는 김선빈의 좌측 2루타 때 홈에 들어오면서 역전 득점도 기록했다.

최형우의 활약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KIA는 김호령의 내야안타와 한승택의 좌전안타로 만들어진 2회 무사 1·2루에서 박찬호의 희생번트에 이은 류지혁의 희생플라이로 3-1을 만들었다. 6회 박찬호가 내야 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에 이어 이창진의 적시타로 홈에 들어오면서 4-1.

하지만 7회초 KIA 불펜이 흔들렸다. 앤더슨이 첫 타자 강민호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대타 안주형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이날 등판을 마무리했다.

이어 전상현과 김대유가 나왔지만 연속 볼넷과 좌전 안타 등이 나오면서 4-3까지 쫓기게 됐다.

박빙의 승부에서 다시 한번 최형우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7회말 선두타자로 나온 최형우가 오승환의 초구 직구를 받아 중앙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30m의 대형 홈런을 장식했다.

최형우의 점수로 한숨을 돌린 KIA는 부상에서 돌아온 장현식과 상승세의 마무리 정해영으로 남은 8·9회를 무실점으로 막고 시즌 첫 스윕을 완성했다. 또 이날 승리로 삼성과 자리를 바꿔 8위에 자리했다.

최형우는 “지금까지 중장거리 타자로서의 내 의무를 다한 느낌이다. 나는 항상 홈런타자가 아니라고 말했었다. 중장거리 타자에 맞는 2루타를 많이 쳤다”며 “삼성이 져서 미안하지만 그 전에 있던 팀이랑 대결에서 (최다 2루타를)한 게 더 기분이 좋다. 삼성에 고마운 마음이 있다”고 최다 2루타 신기록을 세운 소감을 말했다.

스윕승의 시작점인 끝내기 홈런에 대해서는 “내가 잘 친 게 아니라 상대의 실수였다”면서도 “기억에 남는 홈런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뭘 해도 기억에 남는다. 옛날에는 10-0에서 치면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이제는 야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도 타점이 되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3연전이었지만 팀의 승리에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최형우는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최형우는 “마침 팀이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어서 5할 찍고 올라가면 좋겠다”며 “4번이든 6번이든 수비를 나가든 안 나가든 거기에 맞게 역할을 하고 싶다. 해결사가 돼서 내가 뭘 하고, 영웅이 되는 것보다 중간 중간 쏙쏙 들어가서 빈 곳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KIA 양현종은 22일 삼성전에서 5이닝 1실점을 기록, 6-2 경기의 승리투수가 되면서 160승 고지를 밟았다. KBO 통산 세 번째 기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과의 시즌 3차전에서 1회말 기록한 2루타로 KBO 최다 2루타 신기록을 작성한 KIA 최형우가 김종국 감독에게 축하 꽃다발을 받은 뒤 선수들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호수비에 막혀…강원과 홈경기 0-0 무승부

광주FC가 상대의 호수비쇼에 막히면서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광주가 2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K리그1 2023 8라운드 홈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앞선 대구 원정에서 4골을 폭발했던 화력이 강원 골키퍼 이광연의 호수비에 막히면서 득점에 실패, 홈 3연승을 이루지 못했다.

전반 12분 티모가 올린 공이 문전에 있던 아론의 발에 닿았지만 골키퍼를 넘기지 못했다.

전반 16분 광주가 김한길의 패스 실수로 유인수에게 슈팅을 허용했지만, 다행히 공이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 22분 프리킥 상황에서 윤석영이 때린 공이 수비벽을 뚫고 광주 골키퍼 김경민 앞으로 향했다. 김경민이 침착하게 공을 품으면서 실점 위기를 넘겼다.

김경민은 전반 31분 나온 한국영의 슈팅도 몸을 날려 막아내면서, 두 수문장의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됐다.

전반 43분 ‘루키’ 정지훈의 슈팅이 이광연에게 막히는 등 소득 없이 전반전이 끝났다.

후반 17분에는 아사니가 아쉬움을 삼켰다. 이희균이 헤더로 공을 넘겼고, 문전에 있던 산드로가 오른발로 뒤에 있던 아사니에게 공을 밀어줬다. 아사니의 왼발 슈팅까지 연결됐지만 수비수에게 막혔다.

후반 24분 프리킥 상황에서 아사니가 띄운 공이 이순민의 헤더로 이어졌지만 정확성이 떨어졌다.

후반 33분 한 차례 강원의 골망이 흔들렸다. 프리킥 상황에서 아사니가 띄운 공을 아론이 헤더로 연결해 골대를 갈랐지만 아쉽게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갔다.

후반 36분에도 이광연이 광주를 울렸다. 아론이 다시 한번 머리로 골대를 노렸지만 골키퍼에 막혔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 산드로가 마지막 헤더를 시도했지만 골대를 벗어났고 경기는 그대로 0-0 무승부로 끝났다.

광주는 승점 1점을 보태면서 4승 1무 3패(승점 13)로 5위 자리를 지켰지만 이정효 감독은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정효 감독은 “KIA 타이거즈 홈경기가 있는 날인데도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는데 부끄러운 경기를 한 것 같다. 우리 수준이 딱 이정도인 것 같아서 화가 난다.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이겨야 하는데 선수들, 나도 반성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경기였다. 다시 한번 경기장을 찾은 팬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와 강원의 경기가 열린 광주축구전용구장에는 3562명이 입장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우영 KPGA 골프존 오픈 우승…10년 만에 아마추어 챔피언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대회에서 10여 년 만에 아마추어 선수 우승자가 나왔다.

올가을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둔 2001년생 조우영이 주인공이다.

조우영은 23일 제주 골프존카운티 오라(파72·7195야드)에서 열린 코리안투어 골프존 오픈(총상금 7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하나와 버디 4개, 보기 하나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가 된 조우영은 2위 김동민(4언더파 284타)을 4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코리안투어 대회에서 아마추어 선수가 우승한 건 2013년 9월 동부화재 프로미오픈의 이창우 이후 약 10년 만이자 통산 10번째다.

한국체대에 재학 중이며 우리금융그룹의 후원을 받는 조우영은 애초 지난해 열리려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표로 선발된 선수다.

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안게임이 1년 연기되면서 출전을 위해 프로 전향도 미룬 그는 지난달 KPGA 2부 투어인 스릭슨투어 대회에 이어 1부 투어 대회까지 제패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아마추어 선수가 우승하면서 이번 대회 우승 상금 1억 4000만원은 2위 김동민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23일 제주 골프존카운티 오라에서 열린 KPGA 코리안투어 골프존 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한 조우영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사 만루’ KIA 울다 웃었다

9일 두산전, 무득점으로 패배

최근 2경기 무실점으로 승리

가슴 떨리는 ‘무사 만루’에 KIA 타이거즈가 울다 웃었다.

KIA의 2023시즌 초반 키워드 중 하나는 무사 만루다. KIA는 지난 9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8회 무사 만루에서 단 한 점도 만들지 못해 2-3, 1점차 패배를 당했다. 초반 출발이 좋지 못했던 KIA는 답답한 타격 흐름 속 5연패를 기록하기도 했다.

연패에서 탈출해 첫 연승에 이어 스윕까지 만들었던 한 주, 그 중심에도 무사 만루가 있었다.

19일 롯데와의 원정경기. 0-0으로 맞선 3회말 선발 이의리가 선두타자 김민석에게 좌전 안타를 맞은 뒤 안권수에게 내야안타를 내주면서 무사 1·2에 몰렸다. 고승민에게 볼넷을 허용하면서 무사 만루까지 이어졌지만 이의리는 렉스-전준우-안치홍의 방망이를 연달아 헛돌게 하면서 ‘KKK’로 위기를 넘기고, 5.2이닝 무실점의 승리투수가 됐다.

지난해 9월 24일 NC전에서도 이의리는 화제의 ‘KKK쇼’를 펼친 적이 있다. 이때는 볼넷으로 무사 만루 위기를 자초한 뒤 박건우-양의지-마티니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는 진귀한 장면을 연출했었다.

KIA의 5연패를 끊은 결정적인 장면이 됐던 ‘무사 만루’. 22일에는 전상현이 무사 만루의 주인공이 됐다.

변우혁의 만루포로 5-1로 앞서고 있던 6회초, 선발 양현종이 연속 볼넷을 허용하자 투수가 전상현으로 교체됐다.

전상현이 첫 타자 강민호에게 우전안타를 맞으면서 무사 만루. 이어 전상현이 오재일에게 연달아 볼 2개를 던지면서 경기가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전상현이 3개의 슬라이더로 오재일의 방망이를 세 번 헛돌게 하면서 원아웃을 만들었다. 이재현을 4구째 스탠딩 삼진으로 잡은 전상현은 공민규도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무사 만루를 정리했다.

전날 최형우의 9회말 끝내기 스리런에 이어 KIA는 이 경기도 6-2로 마무리하며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다.

위기는 있었지만 이를 막은 마운드의 힘.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KKK쇼’였다.

전상현은 “초반에는 안 좋았다. 안타 맞고 정신 차렸다. 오재일 선배와 승부에서 투볼 때 밸런스가 잡혔다. 벤치 사인도 났고, 직구만 노릴 것이라 생각해서 슬라이더 승부를 했다. (한)승택이 형 볼배합도 좋았다”며 “솔직히 짜릿하고 재미있었다. 첫 타자 잡고 나서 셋 다 삼진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무조건 삼진 잡을 생각으로 던졌다”고 말했다.

또 “밸런스도 자신 있었고 공도 그때 딱 잡혔다. 마지막 아웃 잡고 저절로 (퍼포먼스가) 나왔다”며 “그런 느낌을 거의 한 2~3년 만에 부상당하고 처음으로 느껴봤다. 지금 돌아보면 지난해 좋았던 게 좋은 게 아니었다. 아직 만족은 안 하지만 그래도 힘있게 던졌구나, 내가 원하던 그림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나도 모르게 나왔다”고 웃었다.

뜨거웠던 관중석도 전상현의 집중력을 높인 힘이 됐다. 이번 주말 3연전에는 응원단 포함 삼성팬들이 대거 광주를 찾아 뜨거운 응원전을 벌였다.

전상현은 “조용하면 집중도 잘 안 되는 편이다. 관중이 많으면 뭔가 힘이 나고 그런 게 있다. 개막전 때도 그랬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다. 올해는 무조건 한국시리즈에서 던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관람자로 무사 만루 KKK를 지켜본 이의리는 “다른 구단도 그렇고 그런 상황을 ‘이의리 했다’라고 하더라.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결과가 좋으니까 재미있는 것 같다”고 웃었다.

이의리는 “지난 NC전에서는 볼넷으로 준 상황이다 보니까 이닝 끝나고 안도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롯데전에서는 정말 간절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든 것이라 더 좋았다”며 “번트도 대비하고 있었다. 던진 후에 바로 스타트를 끊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공이 되게 빠르게 날아왔다. 노아웃 1, 2루 되자마자 점수 주기 싫다는 생각을 했다. 볼넷 줄 때도 나름 괜찮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 변화구도 잘 들어갔고, 걱정이 덜했다. 확실히 경험이 있어서 결과가 좋았다. 그래도 무사 만루는 어렵다. 한화전 마지막에 밸런스가 조금 잡히면서 이후 캐치볼할 때도 그렇고 생각 정리가 잘 되고, 힘도 써지는 것 같다”며 “만루 승부에 집중력이 생기고 재미있지만 만루를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의 승부다. 안정적인 선수, 믿고 보는 투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